지금, 여기 제주를 품은 미디어 플랫폼으로

도립미술관 '프로젝트 제주' 제주비엔날레 취소로 기획 13명(팀) 참여 '우리 시대에' 코로나19 속 공존과 성찰 등 설치·영상 '섬 되기'의 탐색

반치옥의 '코로나의 지층'

임서형의 '차롱'

제주도립미술관이 지금, 여기 제주를 품은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신을 꾀했다. 12일 막이 오른 '프로젝트 제주'다.

'프로젝트 제주'는 도립미술관이 주최하는 두 번째 제주비엔날레 취소에 따라 제주 특색을 반영한 전시 행사로 처음 기획됐다. 이나연 관장이 예술감독을 맡아 '우리 시대에'란 주제 아래 13명(팀)의 작가가 2층 기획전시실, 로비, 중앙정원을 배경으로 영상, 설치 등 신작 20여 점을 냈다. 이들 출품작엔 외부-내부, 발전-보호, 개방-폐쇄, 현실-가상공간의 대립과 혼융 속에 시각예술로 제주라는 정체성을 탐색하고 내일을 모색하는 고민이 들어있다.

코로나19가 일상에 가한 충격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강나루의 관객 참여형 작품 '씨앗 감각', 이시절 너와 나의 경험을 나누는 반치옥의 '코로나의 지층', 오늘날 초래한 고통을 마주하며 바다에 사죄하는 에코 오롯의 '플라스틱 만다라', 자연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거리를 영상과 소리에 담아낸 콜렉티브 웃(심건, 김가현, 박상용, 레인보우 99)의 '디스턴스 99', 대자연의 숭고를 광섬유 작업으로 설치한 강태환의 '가든' 등은 그 지점에 닿는다. 반면에 제람 강영훈의 '유 컴 인 위 컴 아웃'은 역병이 불러온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의 모습을 뼈아프게 드러낸다.

자본으로 내달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맞닥뜨린 역병에 대한 성찰로 '쉼'을 이야기하는 공간도 연출됐다. 목재 본연의 물성 등을 이용한 김현성의 '슬러그 벤치 #3', 아트앤디자인(이동임, 박인학, 변화영)의 '느영나영 형형색색', 미술관 중정을 곶자왈로 구성한 중정콜렉티브의 '중중무진(重重無盡)'이 그렇다.

동시대를 들여다보고 있으나 우리가 꿈꾸는 나날은 이미 오래전 있었는지 모른다. 바닷속 영상으로 인간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존중을 풀어내는 제인 진 카이젠의 '제물 드림(An Offering)', 제주 자연이 내어준 재료로 겸손하게 밥상을 차린 임서형의 '차롱', 귀향 후 다시금 다가온 제주를 표현한 고윤식의 '귀로-유목민들', 휴대전화로 촬영한 강요배의 영상 작업 '사운드 스케이프 Ⅱ-아일랜딩'은 제주가 걸어온 삶을 새로이 읽으며 과거가 아닌 미래의 풍경이 될 '섬 되기', '섬으로 만들기'를 말한다.

도립미술관은 2022년 1월 9일까지 계속되는 '프로젝트 제주'에 맞춰 공간·장비 등을 지원하는 협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샛보름미술시장(시민갤러리), 3차원 세계로 재해석해 전시장 안에 들인 세계유산축전 아트프로젝트(기획전시실 2), 제주국제평화센터 연계 전시 등이다. '프로젝트 제주'는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전시도 동시에 이뤄진다. 진선희기자

피아노 위에 내려앉는 민요 선율

제주피아노듀오협회 '세계 민요음악' 시리즈 '… 제주환상곡' 초연

피아노 위에 제주 민요의 선율이 살포시 내려앉는다. 제주피아노듀오협회의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를 통해서다.

이달 14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제주피아노듀오협회가 기획한 '피아노를 통한 세계의 민요 음악' 프로젝트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다. '한국 민요, 피아노 위에 나리다'란 부제 아래 피아노와 민요의 만남이 펼쳐진다.

연주곡은 '아리랑 랩소디'(이지수 작·편곡), '제주 콘체르토 1번 서우젯소리와 메아리'(김한돌 곡),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몽(夢)&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까투리 사냥노래'(양희영 곡), '경기도 민요에 의한 환상곡'(박영란 곡), '제주환상곡 오돌또기, 너영나영'(안현순 곡)이다. 제주피아노듀오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강수정 황정아 조가을 김나영 양지애 서사라 고지연 고혜영 신향이 진영순 송미진 강진숙 김문정 강선임 등 14명이 연주를 맡는다. 사단법인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명창 안복자도 함께 한다.

특히 제주 안현순 작곡가가 만든 '오돌또기, 너영나영'은 이번 공연을 통해 세계 초연된다. 두 대의 피아노와 네 명의 피아니스트, 사물놀이가 어우러지는 작품이다.

제주피아노듀오협회 측은 "제주에서 초연되는 주옥 같은 한국 피아노 창작 작품들과 영상으로 피아노 음악의 다양한 맛과 공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10-9216-2251.

진선희기자

원도심 커피점 찾아가는 전시 예술가 6인 '백 년의 무근 빛'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순아커피(제주시 관덕로 32-1)에서 '묵은 빛의 온기와 제주의 건강한 생명력'을 담아낸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제주 원도심 찾아가는 전시 프로젝트 1'로 기획된 '백 년의 무근 빛'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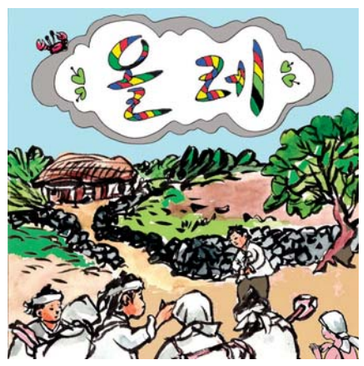
지난달 24일 시작돼 이달 25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전시엔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강건모(헤르츠티어), 고산, 김만, 박지훈, 이승열, 클로이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해 사진, 일러스트, 공예, 드로잉 등 30여 점을 내놓았다. 제주라는 시공간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백 년의 역사를 통과하며 제주 원도심을 지켜온 공간에서 마주하는 해묵은 것들의 새로움, 인생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집,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이야기, 제주의 동물들에게서 받는 위안과 공감, 일하는 할망들을 통해 엿본 제주의 생명력" 등을 표현한 작품들이 나왔다.

전시와 연계해 작가가 직접 전시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온라인(페이스북 페이지 '2021호텔속서가-예술로거리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술 소품들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272>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ᄀᆞᆯ멘. "남ᄌᆞ 아으가 우잣 ᄉᆞ방을 왓닥 갓닥 ᄒᆞ는디,
집 안쪽서 하르바지 지침 소리가 들어졋주. 경ᄒᆞ연
그 안터레 간 여ᄌᆞ 아을 만나젠 와시난 불러줍센 ᄒᆞ신디
하르방이 가인 ᄆᆞ실칸 집이 웃젠 ᄒᆞ멍 싯당 오렌 ᄒᆞ엿주.
ᄒᆞᆯ 수 웃이 남ᄌᆞ 아은 올레질을 나산 한질레레 와신디,
그 디 보난 멍쿠실낭이 이서서. 경ᄒᆞ연 그 여ᄌᆞ ᄀᆞᆯ아준
가냐귀 이왁을 ᄒᆞ여준 게 튼내젼, 그 낭을 ᄌᆞᆺᄌᆞᆺ이 ᄉᆞᆯ펴 보단,
ᄆᆞ실 사름덜이 넘어가가난 욢더레 고짜사멍 인ᄉᆞᆯ ᄒᆞ엿주.

*** 제주어 풀이**

*올레(올래) : <이름>제주만이 지닌 특유의 공간으로 큰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로서 올레의 입구에는 어귓돌이 놓여 있어 여기서부터가 입구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팡돌'이 놓이기도 함.
*우잣 : <이름> 한 집안의 울을 두른 담장이나 그 담장 안쪽의 일대.
*우잣 ᄉᆞ방을 왓닥 갓닥 ᄒᆞ는디 : 사방을 왔다갔다 하는데.
*ᄆᆞ실칸 : 일하러가서(외출 중) *웃젠 ᄒᆞ멍 : 없다고 하면서.
*ᄒᆞᆯ 수 웃이 : 할 수 없이. * 올레질을 나산 : 올레 길에서 나와.
*ᄀᆞᆯ아준 가냐귀 이왁을 : 말해줬던 까마귀 이야기를.
*ᄒᆞ여준 게 튼내젼 : 해준 게 생각나서.
*넘어가가난 : 지나가니깐. *욢더레 고짜사멍 : 옆으로 비켜서며.

고재만 화백

개인 컬렉터 소장품 '가을, 그림 앞에서'

제주돌문화공원 내 누보 도내외 3명 컬렉터 참여

제주돌문화공원 안에 있는 누보가 '가을, 그림 앞에서'란 이름으로 개인 컬렉터들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이번 전시엔 이우환, 박수근, 변시지, 이건용, 강요배, 김종학, 이왈종, 최종태, 박상옥, 앤디 워홀, 뭉크 작품 등 약 20점이 나왔다. 1980년대 변시지의 작품, 이우환의 대표작 시리즈 중 하나인 '점으로부터' 등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김환기, 고영훈, 앤디 워홀의 판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도내외 컬렉터 3명이 각각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지난 7월 누보가 기획한 컬렉터 전시 이후 자신의 소장품도 세상 밖으로 나와 기록되고 전시되면 좋겠다는 컬렉터들의 연락이 잇따랐고 그 중 3명의 소장품으로 전시를 꾸미게 됐다. 특히 제주에 사는 컬렉터는 변시지, 강요배 작품 등을 공개했다.

누보의 송정희 대표는 "개인의 미술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자산이 되고, 이를 적극 전시함으로써 이제는 개인의 소장품이 공공재로 인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전시 기간 동안 제주돌문화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소풍'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727-7790. 진선희기자